

# 서 문

벌써 분단 48년의 역사가 흘렀다.

이처럼 선명한 단일 민족으로서 세계 2차 대전이 낳은 갈등과 냉전 체제 사이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이처럼 오랜 민족적 고통을 겪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를 탈진시켜 무력하게 만든 일본 제국이 파멸의 폐허를 딛고 재기하여 다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운명을 조정, 간섭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냉전체제의 장본 세력중의 하나이던 소련이 붕괴되었고 이북 정권을 절대 지지하던 세력인 중국이 글자 그대로 잠을 깬 사자가 되어 세계 최강의 세력으로 급진전하고 있다. 이 마당에 남한의 역대 정권은 민족통일을 위한 단 한발자국도 내디디지 못했다. 이승만은 분단 정권을 손에 잡으면서 허구한 북진 통일만 주장하다 말았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십여년을 폭력으로 민에 군림하다가 성장한 민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어 위수령 국가 비상 사태 등을 발표하는 등 폭정의 극을 달리다가 민족의 통일염원을 정권 유지의 마지막 카드로 이용하여 1972년에 이른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더니 그것을 미끼로 정권의 영구화를 구도한 이른바 유신체제를 만들어 그로부터 통일론은 정권이 독점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은 예외없이 민족 분단의 비극을 정권 차원에서 회롱했는데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구상화 해놓은 것이 오늘에야 시비를 따지고 있는 이른바 평화의 댐이다.

나는 7·4 성명 이후 어느 교계 지면에 민족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교단만이 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쓴 바 있다. 그 뒤로 나 나름대로 통일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능하며 그런 통일일 때만 자주적 민족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른바 문민정부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 아래에서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미국과 일본 등과의 대화만이 진행되고 이 정권은 그것에 의존하는 듯한 이 자세는 무엇을 말하는가.

드디어 지난 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민족 통일 헌법안 제정을 교단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가결한 것은 쾌거임에 틀림없다.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다음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형성하여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여 기초작업을 추진해왔다. 이 소책자에 수록한 것은 전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이것들은 민족통일 헌법을 작성할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홀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교단에 속한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의 공감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과제를 완성하여 우리 민족 전체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민에 의한 민족 통일 운동에 전위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통일헌법(안) 제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안 병 무